

전업주부는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하는가? ; 사회문화적 압력에 대한 저항과 종교활동 그리고 정당화

An Ethnographic Case Study on Full-Time Housewives' Strategies for Identity

김 선 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족복지전공 부교수

Seonmi Kim

Division of Family Welfare in Gwangju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full-time housewives manage family resources, make decisions, handle pressures, and negotiate the constraints of everyday life in a society that places unrealistic expectations upon them. We approached housewives with an assumption that they are individuals who think, strategize, and solve problems. We also imagined that they are capable of speaking for themselves and making choices under situational and personal limits. Eleven full-time housewives were interviewed on how they experience their marriage, child (or children), family, and society. Their narratives were then analyzed to sort out the strategies the women employ to maintain their identities. The narratives demonstrate the women's will and agency as they work to resolve the contradictions from their daily life, and reveal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ir midst, despite the fact that they had been often considered homogeneous.

Key Words : Full-Time Housewife, Identity Strategy, Family Resource Management

I. 문제제기

기혼여성의 취업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모성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정 내 역할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구조화된 오늘날의 상황에서 전업주부가 성인 여성으로서의 긍정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대응양식을 취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행위성이 드러나는 맥락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출생에 의해 신분이 정해졌으며 개인의 정체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개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끊임없는 물음에 직면하게 되며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기획해야 하는 과제를 안으며 살아가고 있다. 앤소니 기든스(2001:17-24)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선택과 그로인한 복수의 정체성을 열어

주었지만 그러한 다양성은 또한 개인에게 정신적 고투가 따르는 성찰적 기획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여성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성인 여성 정체성의 다양한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조망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적 정체성, 가족과 관련된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의 세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개인적 정체성은 국적, 인종, 학력, 성별, 성적 선호, 연령, 종교 및 고향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가족과 관련된 정체성은 각 세대와의 관계에서 자녀 역할, 부모 역할, 친족 역할, 그리고 가정관리를 담당하는 가정주부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은 취업이나 각종 단체 활동 및 모임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전업주부의 정체성을 이 세 차원에서 살펴보면, 가정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0·40대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경험과 정체성유지를 위한 대응양식'의 일부분입니다.

Corresponding author: Seon Mi Kim
Tel: 062)670-2361, Fax: 062)670-2180
E-mail: yupy1005@hanmail.net

에서의 역할을 위주로 한 가족 정체성이 중심이 되며 개인적 정체성은 가족 정체성 속에 매몰되어 있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전업주부들은 제한된 여성 취업시장과 강력한 모성 이데올로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사회적 정체성은 가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성취되거나 단체 활동이나 모임 등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전업주부는 대부분 모성 중심의 정체성을 갖으며(신경아, 1997, 노영주, 1998: 윤택림, 2001: 송혜림, 2002) 그 밖의 가정 내 역할과 관련된 아내, 가사담당자, 친족관계 유지자로서의 정체성이 전업주부의 주요 정체성 영역이다(장혜경·김영란, 2000). 이러한 연구들은 전업주부로 산다는 것이 모성 중심의 삶을 뜻하며, 이것은 고유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직업 정체성을 비롯한 사회적 정체성으로부터 소외를 초래한다고 말한다.

이제 전업주부가 긍정적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전업주부의 대응에는 무엇인지 선행연구를 토대로 간략하게 살펴보자.

1. 전업주부가 긍정적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

정체성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은 모두 '발전적 와중에 있는 개인의 중심적 특질과 사회적 맥락간의 긴장과 균형의 역동적 성격'을 규명하려고 하였다(Bosma et al., 1994: 163-164). 개인의 정체성은 시간적으로 변화하지만, 특정 시점에서 사회적 맥락과 '나 개인의 나답다'는 특질 사이의 균형 그리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의 지속의 감각 위에서 성립된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전업주부로 산다는 것은, 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아의 지속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전업주부에게 결혼은 이전까지의 삶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자신의 핵가족뿐 아니라 시댁에서의 역할을

비롯하여 많은 새로운 역할과 관련된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를 야기한다. 자신의 핵가족에서는 어머니와 아내로서 그리고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받아들여 그와 관련된 정체성을 수용하게 되며, 시댁에서는 며느리의 역할을 새롭게 습득하여 그와 관련된 정체성을 수용해야 한다(2). 반면, 기존에 지속되어온 딸의 정체성은 새롭게 형성된 정체성과 새로운 역동 관계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체성의 속성과 관련하여, 어머니 역할 중심의 전업주부로서의 삶은 자녀 양육이 끝나는 시기에 이르러 또 한번 단절을 겪으며 그로 인하여 정체성의 위기를 다시 경험하게 된다. 릴리언 루빈(1990: 59)은 '중년기 주부들이 자녀를 떠나보내면서 새로운 시작을 맞으며, 이러한 새로운 시작은 성공하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대체로 여성의 삶에 대한 사회적 제약 때문'이라고 보았다. '자녀출산과 양육이 평생의 중심 과제였던 전업주부는 '앞으로 남은 30년 동안 누구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새로운 물음에 직면해야 한다.

둘째, 전업주부의 맞상대로 취업주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전업주부가 정체성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취업노동에서의 생산성과 보수를 통해 노동자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전업주부는 노인이 젊은이에 비교되듯이 취업주부와 비교하여 비생산적 인구집단으로 열등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즉 '살림도 하고 돈도 버는' 취업주부에 비해 전업주부는 '능력이 없어 놀고먹는 존재'로 치부되기 때문에, 전업주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개인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고가(高價)의 가사용 내구재 보급과 교육비 상승 그리고 해외여행과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중산층의 욕망(3)은 가계 수입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그에 따라 기혼여성이 전업주부로 사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상승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업주부가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셋째, 전업주부의 일상생활 경험 속에는 성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먼저, 기존의 연구들은 전업주부의 일상생활이 어머니 역할을 중

- 1) 전업주부에게 결혼은 직업이나 학업의 포기 또는 거주지의 이전과 관계망의 단절 등을 의미 한다. 다음 글은 결혼을 계기로 생활 세계가 급변하고 남편과의 관계만이 유일한 자기존재확인 의 장이 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겨우 결혼 2개월 차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걱정이예요. 너무 우울합니다.....전 결혼하고자 독일에서 유학준비를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인데 너무도 특별히 미련이 남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실망을 주고.....아무도 없는 서울..원래 대구에 기반이 있는 나로서는 결혼 때문에 모든 게 너무 힘듭니다."(www.jubu21.or.kr/자유게시판 1083)
- 2) 강력한 부계가족주의의 온존으로 전통적인 며느리역할이 지속적으로 강요되고 있음으로 해서 시부모와 동거하는 전업주부의 경우 '적전에서 사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이재경, 2003: 145). 또한 평등한 부부관계의 이상이 충돌하는 지점도 며느리와 딸의 역할과 관련된 지점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강력한 부계가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 3) 일반적으로 소비와 관련된 중산층의 딜레마는 상층육구의 모방과 하층과의 구별짓기라고 할 수 있다(함인희 외, 2001). 그 때문에 중산층 가족은 끊임없이 자원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남편소득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소비표준을 성취할 때 유능감이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심으로 짜여 있으며 모성 역할은 전업주부의 시간과 공간을 크게 제약한다고 말한다. 모성경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신경아, 1997; 노영주, 1998)은 모성 정체성과 개인의 자아의식 간의 갈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모성 역할과 가사노동의 성격이 성인 여성의 개인적 욕구와 상충하기 때문이다.

심층면접을 활용한 기존의 연구들(K.W.Susan, 1986; 릴리언 루빈, 1990; 신경아, 1997; 노영주, 1998; 강신주, 2003)에 따르면, 전업주부는 자극적인 노동에 대한 욕구, 자율성, 노동으로부터 오는 성취감, 사회적 성공,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옷 잘 입기와 몸매 관리, 동료와 함께 일하기, 자유로운 여행이나 휴식을 위한 시간 등에 개인적 욕구를 가진다. 이렇듯 전업주부는 가족과 관련된 모성 정체성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충족될 수 없는 사회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에서 결핍을 느끼고 있으며 모성 정체성만으로는 전업주부의 정체성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

선행 연구들은 전업주부가 전반적으로 부정적 자아감을 갖고 있으며, 모성 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강신주(2002:309)는 전업주부 직책의 문제점을 '자긍심의 상실'로 설명하고 있으며, 신경아(1997:151)는 '자아상실감'으로 보고 있다. K.W. Susan(1986:183)은 전업주부의 정체성을 '자기 내면의 공격과 외부의 공격에 취약한 정체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업주부는 성별 분업 구조 속에서 화폐소득이 있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며 남편으로부터 위임된 권한만을 행사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적극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성인으로서의 자율성이 결여된 전업주부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부인이라는 그림자 인생 속에서 자아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가정 내 가사노동의 개인적 성격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절하 역시 전업주부의 부정적 정체성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사노동은 개인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취감을 주지 못하며 휴식과 일의 분리도 없다. 가사노동의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전업주부는 자긍심을 가진 노동자로서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가 낮다는 점도 전업주부들이 가사노동을 통해 개인적 가치를 확인하기 어

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사노동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노동으로 치부함으로써 전업주부의 일을 단순노무직 정도로 평가하고, 주부를 남편의 지위에 기생하는 존재로 간주하는 제도적 법적 관행은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바로 드러내 준다(신경아, 1997). 전업주부는 이러한 평가를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전업주부가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전 삶과의 연속성 확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삶, 그리고 가사노동의 생산성 또는 가치 확인, 사회적인 성취와 사회적인 가치평가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2. 정체성의 긍정적 유지와 관련된 다양한 대응방식에 대하여

우리는 환경에 관한 수동적 관찰자도 아니며 수동적 반응자도 아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몰입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실제(reality)와 자아감을 창출해 내면서 환경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Kaufman, 1986: 19).

성인 여성으로서의 전업주부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해석이나 삶의 재구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이 이 연구의 전제이다. 일상생활을 통해 성인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 전업주부가 사용하는 전략(strategy) 또는 대응양식(coping style)은 무엇일까?

K.W. Susan(1986) 정체성의 동화와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성인 정체성 과정을 설명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전업주부의 독특한 정체성 양상을 도출하였다⁴⁾. 그에 따르면 성인은 총체적으로 자존감을 유지하고자 하여 '관계에 있어서 애정적이고 충실하며, 일에 있어서 유능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느낌을 얻고자 하는데, 이러한 정체감이 얻어지면 행복감을 느끼되 이러한 정체감에 의구심이 들면 불안과 우울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적절한 정체성에 대한 느낌은 가족 안에서 또는 전반적인 삶에서 의무를 잘 해냈다는 신념에 따르는 일종의 정복감

4) 정체성 동화(assimilation)는 성인이 유지해오던 자기 정체성과 일관된 방식으로 자기 경험을 해석하려는 과정이며, 이 동화 과정은 개인의 기존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체성 동화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적인 경험의 실재를 거부하거나 왜곡하고자 다양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와 달리 한 개인의 경험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부조화될 때 개인의 정체성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accomodation)이 필요하다(K.W. Susan, 1986:17)

(mastery)에서 온다고 한다.

K.W. Susan의 연구결과에 따라 전업주부 정체성의 특성이 성인 정체성 과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즉, 전업주부가 정체성 동화와 수용을 활용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전업주부가 놓여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전업주부에게 정체성 동화 과정은 개인의 상황이 아주 일정하게 유지되는 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지배적인 양식으로 다년간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성장과 취업여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 변화, 그리고 가까운 기혼여성의 취업과 같은 변화에 의해 이러한 상황은 곧 위협을 받는다. 이러한 도전적인 상황에서 전업주부는 개인적으로 흥미롭고 도전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허용하면서 정체성 수용을 사용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정체성 수용에 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심각성을 띠면, 전업주부가 이제까지 세워온 정체성을 은밀하게 손상시킬 잠재력을 가진다. 그 때 전업주부의 반응은 가정 밖 관심사에 관한 생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체성 동화로 역전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전업주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총체적으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 전업주부는 자신의 노동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사노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남이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 전에 전업주부 스스로 먼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당당해지려는 시도이다(강신주, 2002: 314). 이러한 노력은 노영주의 연구(1998)에서 드러난 “아내와 어머니로서 소위 여성으로서 자신에게 기대되는 것과 개인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 사이의 갈등이 있을 때, 모성과 아내 역할 중심의 전업주부로 사는 것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으로서의 나에 대한 포기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것”과도 맥이 통한다.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를 높으려는 것은 전업주부의 낮은 지위를 적절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노력으로 환원되어 우리나라에서도 가사노동에 대한 화폐가치 측정이 시도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표도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전업주부는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 사회적 존재감을 갖고자 할 것이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폐쇄적인 울타리를 넘어 바깥세상과 활발한 교섭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전업주부가 각종 여가활동이나 신앙생활을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가정 내 역할 수행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자아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진전되었다(강정희, 1995: 이상희, 2000: 염영미, 1998: 한경혜·노영주, 1999: 김명혜, 2000). 전업주부의 여가활동이 대응양식으로서 어떠한 잠재력을 갖는가 하는 문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여가활동 이외에 다양한 자원활동은 사회와의 단절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취업도 사회적 존재감을 얻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사회적 존재가 되고자 하는 전업주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취업 자체라기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지위, 노동 가치의 확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 자체를 원하는 전업주부는 취업을 할 수 있고, 취업 이외에 사회적 정체성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원하는 전업주부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변수를 선정하는 양적 연구와 다른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이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론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이제 연구방법과 연구대상에 대해 살펴보자.

II.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이 연구는 전업주부로서 살아가는 기혼여성들이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떤 대응양식을 사용하는가를 연구문제로 삼고,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대상을 중산층전업주부라는 범위로 국한하여 선정하였다. 먼저 연구방법과 연구절차를 소개하고 연구대상의 특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방법과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취하였다. 일상적인 삶의 맥락에서 전업주부의 경험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황뿐 아니라 전업주부가 속한 가정의 상황 그리고 그 가정이 속한 계층적 상황 및 한국사회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상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아야 한다. 질적 연구는 생태적이고 체계적인 요인들이 전업주부의 구체적인 행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려내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업주부의 존재의 문제가 연구의 관심영역이 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그 드문 경우에조차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일상생활경험과 정체성과의 총체적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정체성에 관한 초기연구로서 이 연구가 발견의 맥락에서 진행되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부여하는 의미가 아닌 당사자가 부여하는 의미를 탐구하게 해 주며 현상의 의미도 보다 총체적이고 체험적으로 공감하게 해 주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 존중하여 연

구자가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된다.

한 편, 문화 기술적 연구기법 중 이 연구는 연구대상의 사고와 그 사고를 지배하는 관념적 질서에 초점을 둘 수 있는 심층면접을 주로 활용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일상생활경험 가운데 긍정적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어떤 대응양식을 가지게 되었고 왜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생각, 상황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 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는 주제 중심의 문화기술지에 가깝다⁵⁾. 연구자는 주부문화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인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⁶⁾의 일원으로 연구소의 다양한 활동성과를 공유해 오면서 사전지식을 획득하였고 그를 토대로 전업주부의 정체성유지의 문제를 다루는 주제중심의 문화기술지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 동안의 주부에 관한 탐구와 주부와의 만남을 통해 발견한 중요한 이슈가 바로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총체적인 자존감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인 제보자들이 '정체성의 긍정적 유지' 또는 '총체적 자존감 확보'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삶을 관통하는 주요 이슈임은 분명하였다.

연구절차를 보면, 제보자의 가정에서 면접을 반복 실시하여 참여관찰의 효과도 얻고자 하였다. 제보자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30·40대 중산층 전업주부로 제한하였다. 면접은 Spradley(이회봉 역, 1996:37-53)의 발전식 연구 사이클에 따라 대강의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 사이클을 시작하고 「자료수집 및 기록→ 자료 분석과 보고서 작성→ 이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면접 과제를 선정하는」 사이클을 반복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한 연구자의 물음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일상적인 생활시간구조를 알기 위한 한 주일간의 생활시간표와 자산상태표는 구조화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제보자의 객관적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 성장지와 교육경험, 부모님의 교육수준과 직업, 형제자매관계, 남편의 직업과 수입, 본인의 직업경험과 업무특성 등 제보자의 삶에 대한 보다 표준화된 정보의 수집을 위해서는 반(半)구조적인 질문들이 사용되었다. 셋째,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가 그리고 현재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정체성과 관련된 제반 상황에 대

한 제보자의 생각이 드러날 수 있는 물음은 비구조적인 질문으로 제시되었다.

면접대상은 알음알음으로 소개를 받았는데, 기꺼이 면접에 응하고자 하며 이야기하기를 즐기고, 통상적인 전업주부의 언어를 구사하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면접은 먼저 전화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승낙을 얻어 시간약속을 한 후, 제보자의 집에서 실시하였고 녹음기로 거의 모든 면접내용을 녹취하였다⁷⁾. 자료의 수집은 2003년 4월부터 2003년 9월 사이에 이루어 졌다.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거나 자료의 녹취과정에서 재확인할 일이 있는 경우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다. 면접시간은 대부분 1시간 반에서 세 시간을 넘지 않았으나 제보자가 이야기에 몰두한 한 사례의 경우 여섯 시간이나 소요되기도 했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장기간의 면접을 패히 받아들이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공감하는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35세에서 45세 사이의 자녀를 가진 중산층 전업주부로 선정하고자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36세에서 46세까지 포함되었다. 이 범주의 전업주부를 선정한 이유는 초기양육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는 시기에 있는 경우와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을 하지 않아 어머니역할이 아직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의 소속계층을 중산층이상으로 한정된 결과 제보자들의 남편은 고소득전문직으로부터 사무직종사자까지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을 선정할 때 연구자는 정체성과 관련된 일상생활의 다양성을 포착하고, 그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연구대상의 연령과 자녀의 연령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초기 면접과정에서 비교적 동질적인 전업주부들이 접촉되자, 양선희 씨와 같이 자녀 교육을 성공적으로 한 경우와 윤미숙 씨와 같이 재테크를 성공적으로 한 경우 그리고 이유재 씨와 같이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의도적으로 수집된 사례도 추가하였다.

다음의 <표 1>은 심층면접한 제보자들의 특성을 보여

5) 하임즈(D. Hymes, 1978)는 문화의 기술을 폭과 깊이에 따라 '포괄적 문화기술(comprehensive ethnography)'과 '주제 중심의 문화기술(topic-oriented ethnography)', 그리고 가설 검증적 문화기술(hypothesis-oriented ethnography)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이 세 가지 수준의 문화기술은 상호배제적인 관계가 아닌 연계적인 관계이며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셋 중 어떤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계획하되 다른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문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경우에는 포괄적 문화기술이 불가피한 반면에 그 문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제중심의 문화기술과 가설 검증적 문화기술도 가능하다(조용환, 1999; 114).

6) 홈페이지는 www.jubu21.or.kr이며 2000년 이래 활동 중이다.

7) 녹취한 자료는 A4용지 600쪽 분량에 해당한다.

<표 1> 제보자의 특성

이름	연령	학력	결혼 연령	자녀 성별 (연령, 학교)	취업경험	남편의 직업(연령)
서진화	46	4년제 신학대학	25	딸(20세/ 대1) 아들(14세/ 중2)	없음	외국인회사 사장(49)
이정민	39	대학 중퇴	26	딸(12세/ 초6) 아들(10세/ 초3)	건축회사사무직 (결혼 전)	건축회사 팀장(43)
최현지	41	4년제대학 식품 영양학	27	딸(10세/초3) 딸(8세/초1)	없음	증권회사 과장(43)
양선희	42	4년제대학 수학 교육과	25	아들(16세/ 고1) 아들(14세/중2)	중등교사(출산으로 그만둠)	치과의사 (42)
김미현	38	4년제여대 경제학	26	아들(11/ 초4) 아들(8/ 초1)	없음	전문대학교수 (42)
고현정	37	4년제여대 수학과	31	딸(6세/ 반일제미술학원)	없음(남편 실업중 과외교사 1년)	건설회사 직원(37)
이유재	43	4년제대학국문과	37	아들(6) 아들(4)	방송국작가 (2남출산까지)	사내벤처 부장(44)
강현선	36	4년제여대 불문과졸	25	아들(10세/ 초3)	항공사공항근무 (결혼전 3년)	치과병원장(37)
윤미숙	43	고졸	27	딸(16세/ 중2) 딸(15세/ 중1) 딸(10세/ 초3)	반도체마케팅회사7년근무(결 혼과 동시에 그만둠)	영세소기업 사장(46)
심희경	36	고졸	24	딸(10세/ 초3) 딸(12세/ 초5)	반도체회사 생산직2년 / 일반 회사 총무일 2년	통신회사 차장(39)
정하진	38	4년제대학음대졸	26	딸(6세/ 유치원) 딸(3세)	없음	가정의학과 의사(43)

* 모든 이름은 제보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준다. 이 가운데 연구계확단계에서 이정민 씨를 면접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전업주부제보자는 모두 11명으로 이들 가운데 여섯 명이 30대 후반이며 다섯 명이 40대 전반과 중반이다. 자녀가 한 명인 제보자 두 명과 자녀가 셋인 제보자가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여덟 명의 제보자들은 자녀가 모두 두 명이다. 학력은 지방소재 상업고등학교 졸업이 두 명 친정이 있는 미국에서 대학중퇴가 한 명, 지방소재 4년제 대학졸업이 세 명 그리고 나머지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졸업이 다섯 명이다.

제보자들의 특성 가운데 취업경험과 관련하여 전업주부가 된 경로는 현재 전업주부로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경험의 해석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대응양식에서도 차이를 가져왔다. 먼저 취업경험이 없이 전업주부가 된 제보자들 가운데에는 정하진 씨와 고현정씨처럼 어려서부터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경우와 최현지 씨와 김미현 씨 그리고 서진화씨처럼 취업을 원했지만 취업에 실패한 경우로 나뉜다.

한편, 제보자들 가운데에는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가 여섯 명 있다. 그러나 심희경 씨와 윤미숙 씨 그리고 이정민 씨와 강현선 씨는 모두 결혼하기 전에 직장을 그만

두었다. 심희경 씨와 윤미숙 씨 그리고 이정민 씨는 모두 고졸출신에 걸맞은 사무직에 근무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강현선 씨는 항공회사 공항근무자였다. 결혼 전에 직장을 떠난 이 네 제보자와 달리 양선희 씨와 이유재 씨는 결혼 후에도 각각 교사와 방송국 작가로서 취업을 계속했지만 '출산과 양육부담을 피하지 못하고' 취업을 중단한 경우이다.

주요 제보자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묻는 물음에 대해 '처음해 보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연구자와의 만남을 어색해 하기도 하여 '금방 끝나죠?'라는 물음을 던지기도 하였는데, 이야기를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즐기는 것 같았다. 2차 면접까지 끝난 후에 연구자와의 심층면접에서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를 묻자, 제보자들은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며, 연구자의 필요로 이야기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리고 시간제약 없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한다.

정하진 씨는 "세상의 흐름을 좇아 살다보면 정신없이 살아야 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리할 필요도 있는데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속에서는 다 느낌이 있었지만 한 번도 정리 못하다가 연구자가 계기를 주고 시간도 마련해 주어서 이야기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해 보니 속으로는 문제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화센터의 상담시간 등이 인기를 끄는 이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자와의 인터뷰가 중간에 개입이 없이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것이다. 즉 주변 아줌마들과 이야기 하면 즉시 해답을 주고자 이야기가 중단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연구자와의 인터뷰를 일종의 '정신과의사를 만나 이야기하는 것'에 비유하였다.

또한 윤미숙 씨도 이웃이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살면서 누구나 억눌려서 말 못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고 하소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연구자와의 면접을 통해서 '부담 없이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윤미숙 씨는 그러한 이야기를 교회 사람들과 나누고 위로와 조언을 들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형편이 나는데, 이처럼 깊이 있는 친분을 나눌 사람이 없는 제보자들로서는 이 심층면접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일종의 상담이나 치료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하였다.

Ⅲ. 연구결과 : 전업주부들은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하는가?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분석해 본 결과, 전업주부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전시켜 온 대응양식은 사회문화적 압력에 대한 저항과 가정 밖 모임 참가 전업주부직에 대한 정당화, 건강과 외모관리에 대한 몰두 그리고 취업에 대한 희망 또는 시도 였다. 이 다섯 가지 대응양식 가운데 먼저 이 논문에서는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만듦으로써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고 전업주부로 계속 나아가게 하는 세 가지 대응양식-사회문화적 압력에 대한 저항과 종교활동-을 다루고자 한다.

1. 사회 문화적 압력에 대한 저항

전업주부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압력을 받고 있으며 전업주부의 일상생활은 그러한 압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학부모의 지원을 전제로 한 공교육 체계와 더불어 이제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자리 잡은 사교육 체계가

전업주부의 일상생활에 보다 깊이 개입된 사회적 압력이다. 또한, 자녀교육에서 중심이 되는 학벌주의와 가족주의,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이상으로 자녀를 재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기대와 인식, 그리고 다양한 영역의 생활표준을 포함한 중산층의 소비문화가 자녀양육과 가정경영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전업주부와 관련된 문화적 압력이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과 문화적인 압력이 결합하여 우리 사회 전업주부의 역할을 유사하게 규정하게 되지만, 자원의 다양성과 가치관 그리고 상황에 대한 해석의 상이성에 따라 당사자들이 대처하는 양상도 다를 것이다.

제보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사회문화적 압력에 대한 저항을 통해 전업주부로서의 삶의 경험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대응양식이 발견된다. 저항의 수단은 개인의 특수한 정체성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준거집단의 구분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자원의 범위를 넘는 표준을 거절하고 수행 가능한 수준을 만들어 간다.

전업주부는 자신의 역할과 관련하여 자원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자원이 불충분한 경우 우선 자원을 증가시키려고 하였다. 월 300만원 내외의 생활비로 압구정동에서 생활하기 어렵다는 김미현 씨는 한 달에 50만원 정도씩 친정에서 보조를 받는다. 고현정 씨는 모자라는 생활비는 은행대출금으로 보충하곤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금전계약과 시간계약 때문에, 다른 영역의 요구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한 영역의 자원을 증가시키고 있다. 재무상황이 좋지 않을 때 자녀교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소비를 감축한다거나, 자녀 돌보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파출부를 고용하는 경우가 그렇다. 전자의 경우에는 자신을 위한 소비를 강조하는 문화적 압력에 저항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을 몸소 해야 한다는 전업주부에 대한 기대에 저항해야 한다.

표준을 조절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다른 정체성을 활용하는 것과 준거집단을 재규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정체성의 자원 가운데에는 시골사람 이미지나 서민 이미지, 주관, 양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정체성의 자원은 높아진 표준을 여과하는 장치로서 활용되었다. 또한 준거집단의 재규정은 새로운 압력을 부가하는 집단을 회피하고, 그러한 압력에 대해 함께 저항할 수 있는 회원집단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원의 이용가능성에 따라 수용할 만한 표준을 세우는 것은 불가피하다. '많을수록 좋다', '없어서 못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해 주고 싶다'는 식의 논리는 제보자들을 지배하는 현실적인 가치인데, 자원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표준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전업주부는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정체성을 손상당할 가능성

이 있다.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제보자들은 학부모회 참여와 사교육활동 그리고 촌지 심지어 생일파티 등에서 여러 가지 압력을 느끼고 있으며, 다른 학부모들과 경쟁한다. 이러한 분야에서 널리 퍼져있는 다른 주부들의 관행을 따라 하기에는 '자원도 제약되고 그러한 관행의 정당성도 의문스럽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인식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딸 하나를 제외하고 두 딸들을 예술중학교에 보내고 있는 윤미숙 씨의 경우에는 사교육현장에서 만나는 다른 전업주부들이 자녀를 대하는 방식들이 "부모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윤미숙 씨는 "나는 시골사람이어서 어릴 때 내 것이 아니어도 즐길 수 있는 산과 들이 있었다. 꼭 저렇게까지 해서 애들을 가르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 연구자가 시골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묻자, 윤미숙 씨는 "시골사람은 이해타산이 적고 경쟁심도 적다"고 대답하였다. 윤미숙 씨는 사교육 현장의 이해 타산적이고 경쟁적 속성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설 수 있기 위해 시골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활용하고 있다.

양선희 씨는 지방에 집을 샀다가 부동산투자에 실패하고 '국빈층'인 시택과 친정을 돕느라⁸⁾ 재테크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 양선희 씨는 '자녀 교육자로서' 그리고 '퍼주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하기 위해 다른 부분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그 때 '시골출신에 서민'이라는 정체성을 활용한다. 양선희 씨는 그와 같은 특성이 친정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한다. "내 버릇 개주나, 돈만 생기면 막 남 주고 싶지. 친정엄마한테 보고 배운 게 그거여 가지고" 명품 같은 것도 사고 싶지 않은가에 관한 연구자의 물음에 대해 양선희 씨는 "전혀(아니 예요). 서민적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싶다거나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거나, 전혀 아니예요."라고 답변한다. 한편으로 양선희 씨도 골프치기나 주택소유에 관련하여 중산층으로서의 압력을 받고 있다.

골프 이외에 유혹을 받는 거는 첫째는 집을 사야겠다 35평정도. 집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안정감있이(사투리 표현). 큰 집은 아니래도, 55평 이런 집은 10억짜리 집은 아니래도 한 5억 남짓 되는 집하나 2,000~3,000만원 들어서 인테리어하고 수수하지도 않지 그거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또 재산을 열심히 모아야 되고 재테크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양선희 씨가 중산층의 생활양식을 자신의 처지에 맞게 적절히 수용하는 과정에서 활용된다. 남편의 소득이 급증하던 시기에 골프를 시작하면서 양선희 씨는 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이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는 워낙 서민적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있으면 부모를 호강시켜주고 이려고 싶었기 때문에 골프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우리 남편이 "아야 그래도 우리 그냥 서민적으로 실내골프장에서 시작해보자." 그래서 티켓을 쓴 데서 끊어 와 가지고 시작했는데,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억지로 다녔었는데 그만 두었잖아요.

양선희 씨가 생각하기에 서민은 자기를 위한 소비를 줄이는 사람, 특히 골프는 하지 않는 사람이며, 가난한 부모님을 돕는 사람이다. 양선희 씨 최후의 타협은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를 하는 사람, 서민적으로 골프치는 사람'이 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최현지 씨의 경우에는 사교육을 어느 수준으로 시킬 것인지에 관해 '주관과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테크에 실패한 최현지 씨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생활수준이 이 동네의 수준을 따라가기 힘들다고 평가하면서, 많은 돈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사교육 영역에서 '주관'에 따라 잘 판단하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할 수 있으며 '국립대'를 나온 자신이 손수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난 초등학교 1,2학년 때 수학과외 시키는 것을 보면 한심스러워요. 더하기 빼기 과외를 왜 시키냐고. 안 그래요? 엄마가 더하기 빼기 못하는 거 아니면 엄마가 시키면 되지. 왜 돈이 저렇게. 물론 애가 엄마가 하는 거 싫어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더하기 빼기 지 엄마가 시키면 되지. 저는 이 동네 사람들 안 쫓아가요.

제보자들은 대체로 유치원과 각급학교를 거치면서 학부모회를 통해 유사한 가치관이나 자원을 가진 엄마들과 모임을 구성한다. 그러한 모임을 통해 자녀의 사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조직하기도 하지만, 경쟁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행을 함께 비판함으로써 압력에 저항한다.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오는 압력을 견디고자 최현

8) 양선희 씨의 경우 월 수입이 "1,000만원 안팎이지만 솔직히 말해 600-700 들어올 때도 있는데, 1년이면 2,000정도를 양가를 돕기 위해 쓴다. 그러니까 월 200-30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지 씨는 동네 엄마들을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최현지 씨의 경우, 수용할만한 표준을 설정하는데 ‘죽대’와 ‘의식’을 사용하였으며, ‘죽대 있는 훌륭한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최현지 씨의 다음 이야기 속에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으로 돈을 쓰는 주부들을 ‘돈이 없는데도 헛되이 쓰는 이상한 엄마들’ 또는 ‘돈이 많아서 불필요한 부분에 낭비하는 엄마들’로 규정하고 이들을 회피집단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애들 생일 파티에 일이백 쓰는 건 보통이거든요. 그런 엄마가 있는가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엄마들은 안 그래요. 생일파티 아예 안 열어주는 엄마들도 많아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거예요.내가 죽대가 없어서 따라가다 보면 가랑이 찢어져요. 그렇다고 돈이 다 있어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엄마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엄마들은 아닌 사람은 안 써요. 아주 나보다 더 악착같은 엄마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딱 두 부류라니까요. 돈이 많가지고 쓸 데 없어서 난리를 치는 엄마들, 또 한 부류는 자기 분수에 맞게끔 어디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엄마들 딱 두 부류예요.

이렇게 할 때 최현지 씨는 ‘의식이 있어서 세상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보다 훌륭한 엄마’가 되는 것이다.

한편, 촌지와 관련된 압력은 제보자들 가운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이 보다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제보자들은 시행착오를 거쳐 촌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보자들의 이야기에 반영된 촌지와 관련된 담론은 기본 액수에 관한 것과 일년에 내야 되는 횟수에 관한 것,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촌지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제보자들은 “교사가 촌지를 가져오도록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촌지를 통해 자녀에 대한 교사의 대접을 이끌어 내려고 하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피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촌지에 대한 부담은 그것이 비록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대접이며 자식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촌지가 가지는 ‘불법성과 이기성’으로 인해 전업주부들에게 갈등상황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보자 가운데 촌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정민 씨의 경우 촌지를 한 경험이 자신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그에 따라

촌지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때 이정민 씨는 바로 ‘양심에 꺼리는 것은 하지 말자’고 결심하였으며 다른 엄마들에게도 그렇게 조언하고자 결심하였다.

딱 한 번 했다가 혼났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내키지 않았는데 옆에 교회자매님들과 교사했던 분께 물었더니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했다가 양심이 꺼려 죽을 뻔 했다니깐요. 그래서 정 고마우면 선물을 해요. 물론 선물값이 더 적게 들긴 하지만...이제 누가 물으면 하지 말라고 해요. 아니 내가 속에서 느끼기에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해요. 내키지 않으면...

최현지 씨도 촌지를 하다가 안하기로 결심을 한 경우인데, 그 계기는 ‘안 드려도 관참을 법한 선생님’을 만난 것과, 촌지를 하지 않는 엄마를 만나 용기를 얻은 것이라고 한다. 특히 최현지 씨는 그 엄마의 자식교육방식을 좋아하며 ‘촌지를 안 해서 아이가 불이익을 본다면 그것을 받아서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최현지 씨는 ‘그 엄마가 자원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문직 남편의 아내로 잘 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준거집단으로 삼은 사람과 함께 방어적인 대응양식을 구축하고 있다.

요컨대, 사회문화적 압력에 대한 저항을 통해 전업주부들은 다양한 역할에 있어서 도달이 가능한 수준을 결정하고 그로부터 정체성의 손상을 방어한다. 이 경우 개인이 가진 다른 정체성을 적극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준거집단을 재구성함으로써 지나친 표준을 가진 집단을 회피집단화하고 유사한 자원과 가치를 가진 집단을 회원집단으로 활용하였다.

2. 종교활동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성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제보자 가운데 다수가 종교활동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11명의 전업주부 제보자 가운데 다섯 명이 기독교, 두 명이 천주교, 그리고 한 명이 불교 신자로서, 모두 아홉 명이 종교활동과 관련을 갖고 있다.

불교신자인 최현지 씨는 생활상에서 드러난 종교적 활동이나 그에 부여하는 의미가 거의 없었으나, 천주교와 기독교 신자인 나머지 제보자들은 다양한 활동과 다양한

<표 2> 전업주부 제보자들의 종교활동

이름	종교(주당 참여횟수)	활동내용	남편 종교활동
서진화	기독교(주4회)	가족단위 주일모임 참여, 상담학, 지역소모임 리더	부인과 함께
이정민	기독교(주3회)	가족단위 주일모임 참여, 성경공부, 지역소모임	부인과 함께
최현지	불교	거의 없음	무
양선희	천주교(주2회)	주일미사, 성경공부	"부인보다 더 열심"
김미현	천주교(주1회)	주일미사, (기독교의)기도회	부인과 함께
고현정	무		무
이유재	무		무
강현선	무		무
윤미숙	기독교(주9회)	자녀들과 주일모임 참여, 새벽기도, 성경공부, 양육모임,	무
심희경	기독교(주4회)	가족단위 주일모임참여, 지역소모임, 성경공부, 기도회	부인과 함께
정하진	기독교(주3회)	자녀들과 주일모임참여, 성경공부모임	무

의미부여를 하고 있었다. 먼저 제보자들의 활동내용을 보면, 일요일 예배참석과 성경공부와 기도모임 그리고 지역소모임, 다른 신자(주로 전업주부)를 양육하는 모임 등의 참여이다. 자녀가 보육기관이나 학교에 간 평일 오전 시간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안배되는데, 남편과 종교활동을 함께하는 이정민 씨나 심희경 씨 그리고 서진화 씨를 제외하면 정하진 씨나 윤미숙 씨에게 있어서 종교활동을 위한 저녁 외출은 남편들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한 여덟 명의 제보자 가운데 남편과 함께 하는 경우는 다섯 명이며, 반대로 남편이 종교활동을 하는데 자신이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제보자는 한 명도 없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김미현 씨네 남편의 종교활동은 주일미사가 가족이 공유하는 생활의 하나로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신기영(1991:39)은 중년기주부의 위기감에 관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종교가 실존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고 안전과 위안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그 종류와 관계없이 중년기주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Madelene(1981)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종교는 인생의 유한성에 직면한 중년기 주부에게 실존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목표를 재정립하도록 하며 나아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신기영, 1991: 12에서 재인용). 또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종교는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통해 주부들의 우울감 감소에 기여함도 입증되었다(박정희·유영주, 1999: 99).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전업주부들이 삶의

전기적 맥락과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로 종교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 활동의 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해 볼 때, 전업주부 제보자들이 얻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먼저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가장 제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러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라는 서진화 씨의 표현대로 종교는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자기가치를 확인하는 장이 된다. 또한 서진화 씨처럼 소모임의 리더로 활동하거나, 윤미숙 씨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양육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함으로써 종교는 긍정적인 정체감을 강화해 주었다. 서진화 씨는 소모임의 리더를 뜻하는 순장¹⁰⁾이 된 것의 긍정적인 효과를 '남편도 좋아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는 주부들 사이에서 가정역할과 관련된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서적인 지원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자녀교육 및 통제에 필요한 가치관을 주부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김미현 씨는 천주교신자인 자신이 기독교도들의 구역예배에 참석하여 기도한다는 '비밀'을 말해 주었다. 김미현 씨가 자신의 주요 종교인 천주교와 상호배타적인 기독교와 관련을 맺는 이유를 장애를 가진 아들의 사정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서 기도모임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밖에 종교는 전업주부가 주도하여 부부관계를 복원하는 기제로 활용되기도 한다. 침예한 성별 분업구조 속에서 부부간 공유할 부분이 많지 않은 전업주부로서는 종교 활동을 함께 하게 되면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고 실

9) 일반적으로 종교가 가지는 가부장성으로 인해 가정 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강화되고 주부들이 가진 저항과 울분이 흡수되는 측면이 있으나 또 한편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업주부들은 남편들의 묵인 하에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한계 내에서 자신의 개별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하겠다.

10) 서진화 씨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소그룹을 순으로 부르며 그 리더를 순장으로 부름.

제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된다. 양선희 씨는 ‘밥만 차려주고 말도 안할 정도이고 이혼밖에 길이 없는’ 악화된 부부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종교를 활용하려고 한다. 지금으로서는 천주교에서 집으로 보내주는 ‘좋은 말씀’을 남편도 볼 수 있게 남편이 보기 쉬운 곳에 놓아둔다고 한다. ‘날개 잃은 새’로 자신을 비유하는 전업주부 양선희 씨는 ‘예전처럼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새롭게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종교에 기대고 있다.

또한, 종교 활동은 전업주부에게 가정 밖의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립감을 극복하게 해 주며 생활시간을 구조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헬스클럽에서 매일 오전 시간을 보내는 최현지 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교 활동에 깊이 참여하는 제보자들도 한편으로는 자녀교육을,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 활동을 생활시간의 기본적인 두 가지 축으로 삼고 있다. 이를 보면, 자녀교육이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곳이라면 종교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다.

자녀교육과 종교 활동의 두 축을 왔다 갔다 하는 윤미숙 씨와 서진화 씨의 이야기를 통해 전업주부의 한계에 대해 종교 활동이 줄 수 있는 대안적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윤미숙 씨의 경우 매일아침 지역의 새벽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버티죠.’ 윤미숙 씨의 종교 생활의 시작은 자녀들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서부터이다. ‘주부들이 잘 사는 방법’으로 윤미숙 씨는 종교 생활을 ‘만병통치약’으로 들고 있다.

아 주님을 믿으면서 살고,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함이 있고, 공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왜 세상 것을 저도 막 이제 결혼하고 서부터도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면서 살았었잖아요. 그런데도 신혼 초하고, 아이들 막내 어렸을 때 신앙에 공백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뭔가 공허했었거든요.....그리고 남편하고의 관계도 힘들었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든지 주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항상 뒤에 백그라운드 가 있다는 게 보이지 않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허하지도 않고,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인식이 되잖아요.....또 내가 정말 신앙을 가진 이유도 어느 한계까지는 엄마 품안의 자식이 될 수 있는데 그거 이상이 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네들한테 과연 어떤 게 컨트롤이 될까?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이요. 그걸 알아요. 알겠어요. 가장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심

어줄 것이 나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윤미숙 씨의 경우 결혼생활 동안 느낀 공허감을 극복하게 해 주고 존재의 의미를 찾게 해 준 것이 신앙이며, 남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자원 즉 “background” 또한 신앙이고,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해 준 것도 신앙이다.

서진화 씨의 경우 종교생활의 시작은 대학 때 가졌던 소속감에 대한 그리움과 ‘물질(금전을 의미함)이 빠져 나갈까봐 두려워서 말리시던’ 시어머님에 대한 반발이었다. 따라서 서진화 씨에게 종교 활동은 소속감의 획득을 의미하여 개별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찾은 것을 의미한다. 종교 활동을 한 결과 서진화 씨는 ‘시어머님으로 인해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한다. 또한 서진화 씨는 종교를 통해, 소년소녀 가장 돕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자녀의 친구들을 함께 보살피던 그 보살핌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서진화 씨는 교회에서 10명이 한 팀이 되는 소모임의 장을 맡아 ‘잘하지는 못해도 남편이 더 기뻐하는’ 리더(앞에 말한 순장)가 되었다. 서진화 씨의 경우에 종교가 자신의 개별적 가치와 더불어 가족과의 관계 등 전반적인 삶의 수렴부위가 되고 있다.

아내고, 어머니고 그것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신앙하고 같이 연결이 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신앙 없이 내가 아내고, 내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세상하고 똑같은 그런 엄마, 아이를 잘 키우고 물질적으로 성공을 하고 이렇게 밖에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신앙 안에 있으면 그래도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믿으면서 키우고 어떻게 유익한 사람으로 키우고 남편의 회사생활도 돈하고 연결되는 것보다는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시는 일, 맨 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연결이 되죠.

또한 서진화 씨에게 종교는 자신을 세상과 구별해내는 기제가 되고 있다. 그러한 구별짓기를 통해 서진화 씨는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에 동조하기 싫고 동조하기 어려운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고 있다. 서진화 씨에게 종교는 자녀교육의 실패 상황을 재해석하게 하고, 자녀와 자신의 중요성을 방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관을 제공해 준다.

그 전과 달리 하나님 아래서 보니까 다 귀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도 다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드니까 정말 머리가 덜 아파요, 실은. 그 전에 우

리 딸 같으면 저렇게 성적을 받아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난리를 치죠. 그런데 이제 뭐 달래서 이번에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성적이. 조금 낮긴 해서. 그리고 조금 걱정은 기초가 조금 약해서 하긴 하는데, 주위에 큰 아이를 키울 때는 못 봤는데, 조금 둘러보니까 중학교 때 잘 했다고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고, 또 그게 사회하고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해졌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세상사는 게 뭐 공부, 이렇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게 아 정말 그렇구나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요컨대, 종교 활동을 통해 전업주부 제보자들은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얻을 뿐 아니라, 자녀교육과 부부관계와 관련된 가정 내 역할을 통합하게 된다.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전업주부가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감당하기 어려움 압력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 종교활동이 긍정적인 자아감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종교활동이 모든 전업주부의 대안이 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것이 '신앙적 결단을 통한 도그마의 수용'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부장제적 특성이 강하거나 교세확장을 위해 신자들의 선호를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동조성향이 높은 경우에는 평등한 부부관계로의 변화를 시도하거나 세상의 압력에 저항할 근거를 찾으려는 전업주부들에게 적절한 대안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질 수 있다.

3. 전업주부직에 대한 정당화

전업주부로서의 삶의 경험이 자기정체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리화함으로써 전업주부직을 정당화(justification)하는 것도 제보자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대응양식이다. 이러한 정당화는 전업주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다지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하지 않은 제보자들이 이야기 끝에 서술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정당화는 총체적 자존감유지를 위해 삶의 현실을 전업주부로서의 정체성에 동화하고자 사용하는 일종의 방어기제이다.

제보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정당화 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업주부로 사는 것이 오래 동안 자신이 원하던 삶이며 자녀들에게도 최선의 선택이 되었다고 보

는 것, 현재 자신의 가사노동을 가족원을 위한 사랑에 기초한 것으로 높게 평가하고, 자신은 가족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중요한 일을 하는 존재임을 부각하는 것, 대안적인 삶인 취업주부로서의 삶을 폄하함으로써 전업주부직의 잇점을 부각시키는 것, 실제로 전업주부로서의 삶의 한계 내에서 성취한 것들을 통해 다른 부정적인 결과들을 상쇄하는 것 등 전업주부로 사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정당화되었다.

먼저 제보자들은 현재 자신이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것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임을 함축하면서, 그 선택의 불가피성을 자녀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그리고, 친정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피력하고 있다. Chodorow(1974)는 성인 여성은 자녀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았던 어릴 적의 아이로 경험하게 되며, 유아로서의 자신의 관점을 현재의 모-자녀관계에 투사하게 되고,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성인의 관점에서 모-자녀 관계를 인식하게 된다고 한다(노영주, 1998: 95에서 재인용). 어릴 때 집에 없었던 어머니에 대한 결핍을 자식의 어머니로서 자녀 곁에 있어 줌으로써 보상하고자 하는 것은 결핍을 느낀 정도에 따라 제보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강현선 씨는 '늘 집 바깥으로 돌아다니시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어머니가 싫었다. 나는 어머니와 다르게 살고 싶다'라고 한다. 그리고 정하진 씨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온 경우로, 자식들과 따로 떨어져 사신 부모님도 회생을 했다고 여기지만, 곁에 있어주지 않은 어머니를 평생 원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자신은 '중요한 어린 시절'에 아이들 곁에 있어 줌으로써 해서 '원망 듣지 않겠다'라고 말한다.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위해 늘 가정밖에 있던 어머니를 둔 서진화 씨는 '어린 시절뿐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필요했음을 상기하면서 평생 전업주부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을 보여준다.

일하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이제 아버지 밑에 가서 잠깐 돌봐준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 엄마가 그런 게 저는 좀 싫었거든요. 왜냐 하면 내가 필요할 때 엄마가 좀 옆에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좀 방임형이세요. 이렇게 좀 놀아서 기르세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좋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힘들고 고 3 때 어려울 때 좀 이렇게 잡아주면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고 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식을 낳으면 제가 그냥 키우고 싶었어요.

제보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과 동일시되는 자녀를 돌보는 것은 바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중요하다고 평생 동안 생각해 온 일을 함으로써 현재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것이 '일관성 있고 훌륭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뜻하게 된다. 이러한 전업주부직에 대한 합리화를 통해 긍정적인 정체성을 강화하게 된다.

전업주부직을 정당화하는 제보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엄마노릇하기에는 전업주부로 있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과 더불어, 취업주부는 아이들 곁에 있어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으므로 엄마노릇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그러나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전업주부가 되었다고 한 제보자 가운데, 현모양처를 지속적으로 꿈꾸어 온 정하진 씨를 제외하고 강현선 씨나 서진화 씨의 경우에는 각각 취업을 희망했지만 실패한 경우이거나 취업했지만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 후퇴한 경우이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전업주부를 희망했다기보다는 전업주부가 된 후에 합리화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업주부직에 대한 정당화방법으로 자신의 가사노동을 가족원을 위한 사랑에 기초한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자신은 가족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중요한 일을 하는 존재임을 부각시키는 것이 있다. '애들이 다 큰 지금에도 전업주부로 있는 것이 어떤가?'라는 물음에 대해 서진화 씨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애들이 크고 보니까 그냥 주부로서 저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살림을 다른 사람, 내가 나간다면 누군가 맡아서 해줘야 된다면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더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내가 나가서 할 때 보다 우리 집 식구들이 더 편하게 영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살림보다 내가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업주부로서의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경우는 반드시 취업주부들의 경우와 비교하게 된다. 전업주부로 사는 것이 서진화 씨에게는 '시간적인 여유와 여유로운 마음, 자유로운 휴식'이 있고, '보살핌의 영역을 확장하여 취업주부아이들을 돌 볼 수도 있는' 삶을 의미한다.

예, 애들이 놀러오면...이제 전업주부, 마지못해 집에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우리 집에 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밖에 나가서 안하고 개네 엄마들은 주부로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개네 집에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집에 오면 내가 개네들을 돌봐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주면 이게 모든 엄마들이 직장을 나가버리면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정말 주부로서 아주 귀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일을. 우리 집에 아이들이 참 많이 놀러 왔었거든요. 왜냐 하면 다들 직장에 나가고 없었기 때문에. 또 이제 직장에 나가고 없는 부모 집에는 보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이들 비디오 뭐 이런 것 하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놀러오면 놀게 하고 뭐 음식도 챙겨주고 그러면,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저는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주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따뜻함은 물론 직장생활하시는 분들도 따뜻한 마음이 다 있지만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서진화 씨에게 취업주부에 대한 부러움은 찾아보기 어렵다. 서진화 씨의 경우에는 종교 활동을 통해 사회적 정체감과 개인적인 정체감을 확보한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된 남편의 소득¹¹⁾으로 취업을 희망하지도 않는다. 서진화 씨는 대학입시가 마음대로 안 되면서 직업정체성을 추구하기를 포기한 경우로서 '돈은 남자가 버는 것'이라는 입장을 정하고, 결혼 후 한 번도 취업을 생각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런가하면 전업주부로서의 삶의 구체적인 장점을 생각하면서 전업주부의 삶에 부정적인 도전을 주는 취업주부의 삶을 폄하하는 방법으로 정당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고현정 씨에게는 전업주부로 산다는 것이 "남 눈치 안보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남 눈치 보는 거. 쇼핑할 때 쇼핑하고 밥 먹을 때 밥 먹을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의미한다. 고현정 씨는 취업할 경우의 기회비용에 대한 계산을 마친 경우로, 취업해도 유리할 것이 없고 좋아 보이지도 않는다고 한다.

큰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둘째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한 살 어린애를 가진 내 친구가 하나 있어요.

11) 서진화 씨 남편은 외국인회사의 월급사장으로 월 800만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있고 서진화 씨와 시어머니의 합작에 의한 재테크의 성공으로 강남에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며 남편은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퇴직을 하더라도 자격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데 그 애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 200벌어오나? 양육비며 뭐며 다 나가요, 차유지비 뭐, 그런데 내가 너 왜 나가니 응 너만 힘들잖아 갖다 와서 청소하잖아 왜 나가 그랬더니 난 안 나가면 죽어 이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아침에 운전하면서 노래 틀어놓고 운전하는 게 이게 낙이야 그리고 간혹 있는 회식, 이런 게 나의 낙이다. 이러더라고요.

고현정 씨는 취업주부의 이중부담과 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음을 강조하는 반면, 취업과 관련된 또 다른 자유시간과 회식과 같은 취업주부만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은 취업의 장점으로 생각한다. 고현정 씨의 경우 '집을 나서면 갈 곳도 없고 아무 것도 해 놓은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아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실패한 인생으로 규정한다. 고현정 씨의 경우 현실에 대한 직지에서 나온 새로운 대안의 탐색보다는 잘못된 결혼에 뒤따라오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논리를 통해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원래의 자신과 분리하는 방식으로 방어함으로써 정체성 동화를 지속하고 있다.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전업주부로서의 삶의 한계 내에서 성취한 것들을 통해 다른 부정적인 경험들을 상쇄하는 것이 있다. 전업주부로서의 삶의 경험이 정체성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제보자들은 교육이나 재테크 등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얻고 있는 경우이다. 양선희 씨와 윤미숙 씨는 학벌사회에서 자녀교육의 성공이 전업주부의 삶을 얼마나 잘 정당화해 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출산으로 인해 취업을 중단해야 했던 양선희 씨가 전업주부로서 후회하지 않는 근거는 교육자로서 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말 이게 좋다는 아니지만 후회는 없다 전문직을 가질 수 있는 상황도 되었고 대학원을 가려고 했어도 도저히 못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전업주부로 되고 지금 43세에 와서 되돌아보았을 때 나도 열심히 살았다 이 생각은 든다고요. 왜냐하면 음식 하나를 잘 해야지 그런 쪽의 가치보다는 육아프로그램이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훌륭하게 키워볼까.....애기 머리 이런 거를 떠나서 엄마가 애들을 교육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한 그 산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얘기를 가르쳐서 성적이 1등이 아니라 인성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자적인 관점에서 두 애의 교육자였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양선희 씨는 두 아이의 교육전문가임을 자처하고 남다른 교육관으로 자녀들의 견문도 넓혀주고 인성교육에도 신경을 써 결과적으로 '깨끗한 일등'을 만들어 낸 성공한 주부로서 자신의 삶을 평가한다. 양선희 씨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잘못 보내 대학입시에 실패했던 데에서 오는 열등감에 시달리던" 자신을 자식들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식의 교육적 성취가 어머니로서의 성공뿐 아니라 실패한 자신의 삶의 복원이라는 의미를 얻고 있다. 이와 같은 양선희 씨의 생각에는 자녀교육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며 자녀의 교육적 성취는 어머니의 노력의 결과라는 주장이 담겨져 있다.

윤미숙 씨도 이루지 못한 꿈을 잇는 자녀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자녀의 성취로 인해 전업주부로 사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양선희 씨와 비슷하다. 윤미숙 씨는 예술적 재능이 있었지만 가정형편상 대학진학을 못한 경우이다. 윤미숙 씨는 자녀들이 자신의 재능을 물려받았으며, 자녀들을 효과적으로 뒷바라지하여 예술중학교에 진학시킴으로써 이미 절반의 성공은 얻고 있다.

다른 제보자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K.W. Susan(1986: 19-20)에 따르면, 정상적인 성인은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면 행복감을 얻지만, 이 정체성에 의구심이 들면 불안과 우울감을 느낀다고 한다. 특히 성인들의 경우 적절한 정체성에 대한 동기는 가족 안에서의 의무를 잘 해냈다는 신념 또는 전반적인 삶에서 의무를 잘 해냈다는 신념에 따라오는 일종의 정복감(mastery)에서 온다고 한다. 현재 전업주부로서의 삶의 경험이 자신의 정체성에 긍정적인 확신을 주지 않을 때 제보자들은 장래에 가족안의 의무를 다 해냄으로써 긍정적인 정체성을 얻고자 할 것이다. 다른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일생 지속될 전업주부로서의 삶의 귀결을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생각은 보편적인 것이었다.

재테크에 실패한 남편, 사회적으로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은 남편, 그리고 자신에게도 무심한 남편에게 걸어 온 기대를 접고 '틀릴 털고 일어서겠다'는 최현지 씨도 자신이 나갈 길이 '자녀교육의 성공에 매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고 내가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나는 이렇게 자식을 잘 키웠다 그렇게 큰 소리 한 번 치고 싶어요(최현지)" 이를테면 최현지 씨의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부정적 경험을 인정하되, 자식들을 잘 키워서 '인생의 최후 승리'를 맛보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최현지 씨와 같은 자녀교육을 통한 자기존재의 확인은 다른 한 면에서 부부관계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보상하기 위한 일종의 정체성 동화에 해당한다.

이정민 씨와 심희경 씨는 평범한 회사원의 아내로서

남편의 소득을 활용하여 아파트를 장만하는 재테크에 성공한 경우이다. 심희경 씨는 언제나 '당시에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전세를 구하거나,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이상의 평수'를 가진 아파트를 구매하고 그 돈을 갚기 위해 강제 저축을 함으로써 재산을 불려나갔다. 심희경 씨의 다음과 같은 의견 속에는 가계의 저축습관이나 전세 및 주택가격상승 등에 관한 자신의 통찰력이 반영되어 있다.

남편은 나보고 맨날 어렵다고 하면서 간 큰 짓을 한다는 거야.....그런데 그게 간 큰 짓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안하면 저축해 가지고 언제 집을 사요? 그 다음에 저축 같은 거는 적당하게 우리 생활에 맞추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안돼.....힘들어도 집은 좀 가격을 뺀 거를 해서 갚아나가야지. 현 시세에 저축해 가지고는 우리 4 천만 원 저축하면 집값은 8천만원 올라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런 집을 우리가 빚을 내 전세를 살잖아요. 그러면 4년 뒤에는 그 돈 가지고는 안 되는 집을 또 이사 가야 돼요. 지금도 제대로 하나도 못하고 더 이상하고 누추한 안 좋은 데로, 살아보니까 그럴더라고요

이정민 씨도 주도적으로 재테크를 한 경우는 아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남편보다 더 많이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아무 것도 없는데에서 시작했는데, 시댁에 들어가면서 강북에 집을 팔고 목동에 사놓은 집이 시가가 오르는 식으로 시대를 탔죠. 그런데 다 내가 운이 좋고 그것이 나의 신앙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서진화 씨의 경우나 윤미숙 씨의 경우에도 남편들이 벌여오는 소득을 잘 관리하고 주택구매를 통해 재산을 불려나간 경우이다. 그런데 이들 자산형성에 기여한 제보자들은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통해 나름대로의 유능함을 발휘하였고, 그 결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안정되고 유복한 삶을 꾸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긍정적인 정체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제보자들이 말하는 재테크란 '이사 다니지 않고 살만한 자그마한 아파트를 마련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심희경 씨와 이정민 씨 모두 방이 두 개인 아파트를 사는데 기여한 것이다. 심희경 씨 네는 자녀들이 모두 딸이어서 한 방을 쓰지만, 이정민 씨 네는

자녀들이 성별이 달라 두 방을 각기 두 자녀에게 주고 부부는 거실에서 취침한다. 그러므로 건축설계사인 이정민 씨의 남편은 집에 귀가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고 그에 따라 귀가가 늦어지는 것이다. 이 점은 강남에 시가 9억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장만한 서진화 씨도 예외가 아니다. 일생동안 집을 사고 판 결과 성장한 두 자녀와 함께 살기에 넉넉한 방 네 개 딸린 집을 한 채 샀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들을 보면 집을 사기 위한 노력과 그 노력을 수행한 전업주부의 행동은 전업주부가족이 취한 일종의 생존전략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업주부를 모두 '복부인'으로 부르며, 투기의 주범으로 보는 사회적 담론은 집값의 이상상승의 원인을 제거하기 보다는 희생양을 선택하고 그 비난의 화살을 주부들에게 돌리는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부적절한 담론은 재테크를 통해 집사는데 기여하지 못한 주부들에게 또 다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전업주부직에 대한 정당화는 네 방면에서 일어나는데, 먼저 전업주부직이 자신과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다. 그 경우 과거를 선택의 시점으로 삼음으로써 '삶은 다 그런 것'이라는 방어적인 엄격함(defensive rigidity)¹²⁾을 구사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하고 있는 가사노동을 가족원에 대한 사랑에 근거한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삼는 것이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화폐가치로 산정하고 그 것을 사회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가사노동에 관하여 낮게 평가하는 것을 수정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정당화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¹³⁾

그리고 취업주부의 삶에 대한 폄하를 통해 소극적이거나 전업주부로 사는 것의 잇점을 역설하려는 것이 있다. 주로 좋지 않은 취업경험이나 취업주부의 삶에 대한 단기간의 비교가 그 근거가 되는데 중점은 취업주부들의 잇점에 대한 보편적인 비교 또는 치밀한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취업주부의 삶에 대한 폄하는 객관적 비교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전업주부직의 사후 정당화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끝으로, 전업주부로서의 삶의 한계 안에서 각본에 상응하는 성취가 있는 경우 그 것을 통해 다른 부분의 실패를 상쇄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요한 분야로는 교육적 성취와 재테크의 성공이 있다.

12) 방어적 엄격함이란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예정된 운명을 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얼마나 바람직한가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성찰하는 것이 반드시 건강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에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미에서 방어적(K.W. Susan, 1986: 27).

13) 가사노동가치의 화폐적 평가가 전업주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전업주부가 '놀고먹는 것이 아니며 무시할만한 것도 무가치한 것도 아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가치를 화폐로만 평가함으로써 본질적인 가치를 과소평가할 우려'도 있다(21세기 주부문화 연구소, 사이버 강의 참조).

IV. 요약과 결론

질적 방법에 기초한 이 연구에서 전업주부는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업주부는 “나름 대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행위성(agency)”을 보여주고 있다.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략 다섯 가지 중요한 대응양식을 발견하였다. 그 가운데 이 논문은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지속하는 것과 우선 관련되는 세 가지 대응양식을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건강관리와 외모관리에 몰두하는 것이나 취업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양식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대응양식은 전업주부가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응양식에 속하지만, 전업주부로서의 삶이 개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측면과 가사노동이 유능함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는 특성이 있다.

그 반면에 이 논문에서 다룬 사회문화적 압력에 대한 저항과 종교 활동 그리고 전업주부직에 관한 정당화는 전업주부직을 지속시킬 주요 근거가 되거나 보조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업주부가 처한 상황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압력에 대한 저항은 궁극적으로는 수용할만한 표준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는데, 그 수단에 서민 시골사람과 같은 개인의 특수한 정체성의 자원이 동원되고 양심과 주관과 같은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을 활용하였다. 그 뿐 아니라 도달할 수 없는 높은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 표준이 과연 따라갈 만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보여주었는데, 준거집단을 재규정함으로써 압력을 주는 집단에 비난을 가하고 편안한 집단을 선택하였다.

종교활동은 가정 내 역할에 매몰된 전업주부가 얻기 어려운 개인으로서의 가치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전업주부로서 사는 데 필요한 중요요소를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역할은 또한 인생의 가치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종교의 힘을 통해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종교의 활동을 통해, 전업주부가 원하는 대로 가족들을 통합해 낼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한다. 종교활동은 전업주부로서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양 방면에서 보충해줌으로써, 그 어느 대안보다 견고하고 지속적인 대응양식이 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전업주부직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전업주부로 살아온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전업주부로서의 삶의 태두리 안에서 긍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전업주부가 된 것이 취업주부가 되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점과 자신이 맡고 있는 가사노동이 대체 불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점 그리고 전업주부로 살면서 성취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당화방식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를 주요 테마로 진행한 심층면접 자료 곳곳에서 발견되는 정당화의 시도자체는 전업주부로서의 삶이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전반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역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지속하면서 정체성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요소들을 흡수하려는 노력이 이 세 가지 대응양식을 통해 부각되었다. 이러한 대응양식이 보여주는 바, 전업주부는 단지 가부장제의 희생물로서 사회가 부여한 각본에 의해 획일적인 삶을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자원부족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올바르게 않은 문화적 표준을 비판하고, 종교와 같은 대안을 찾아 개인으로서의 가치도 확인하고 가정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보조적인 자원들을 추가적으로 획득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어진 한계 내에서 긍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싶다는 염원은 바로 정당화를 통해 드러난다.

반면, 선행연구 가운데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윤택림(1996: 107-108)은, 전업주부의 일상생활을 모성이데올로기의 체계모니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정체성과 관련된 전업주부들의 부정적 경험은 조명하였으나 ‘그 속에 행위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윤택림의 결론은 전업주부의 행위성의 한계가 보다 거시적인 수준에서 작용하는 모성이데올로기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전업주부가 처한 상황 속에서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이런 저런 노력을 해보는’ 행위성을 개인적인 체험과 해석 그리고 삶의 재구조화를 통해 드러내고 있으며, 또 전업주부들이 처한 개인적 상황과 가정의 상황을 포함한 제반 상황이 그 행위성을 어떻게 제약하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 편 이 논문을 통해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경우 몇 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대상이 중산층이고 3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으로 국한됨에 따라 이 연구는 제한점을 가질 것이다. 첫째, 중산층 전업주부에 해당하는 보다 일반적인 사례로 연구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30대와 40대의 보다 다양한 사례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 연구에서 활용한 11명의 제보자는 ‘전형적 표본’으로서가 아니라 ‘예시적 사례’로서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사례가 포함된 향후 연구를 통해 전업주부들이 총체적인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발전시킨 새로운 대응양식도 발견될

수 있으며 상이한 맥락에서 상이한 대응양식의 조합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도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가 포괄하는 전업주부의 연령대는 전체 전업주부의 43.1%에 해당한다(김선미,2004:29). 따라서 20대부터 30대 초반 그리고 50대 이후 전업주부를 연구해야 한다. 전업주부로서의 삶이 여성의 생애기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다양한 연령층을 포괄하는 연구는 정체성 유지를 위한 대응전략이 여성의 인생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고찰하게 해 줄 것이다.

셋째, 저소득 계층으로 연구대상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 중산층의 소비문화가 주는 압력을 어떻게 방어하는가, 구별지어야 할 아래 계층이 없다는 점과 취업 가능성이 중산층 전업주부들과 다르다는 점으로 인해 부부간 자원 불균형이 심화되기 어렵다는 점 등은 이러한 방어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가 연구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차후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주부들이 받는 압력과 그에 대한 정당화 및 저항의 기제, 그리고 그들이 놓인 상황에서 가정 내 역할을 수행하고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다른 계층의 경우와는 어떻게 다른지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전업주부, 정체성 유지를 위한 대응양식, 가족자원 관리

참 고 문 헌

- 강신주(2003). 페미니스트 홈메이커 Ph.D. 문예당.
- 강정희(1994). 중산층주부의 여가에 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혜(2000). 여성들의 가족 내 역할수행-광주광역시 중산층 사례연구. 한국문화인류 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 노영주(1998). 초기모성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 아동학과 박사학위논문.
- 릴리언 루빈(1990). **중년여성의 좌절과 홀로서기**. 김용미 역, 서울: 정우사.
- 박정희 · 유영주(1999). 주부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관계 변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91-119.
- 송혜림(2002). 한국기혼여성들의 정체감과 역할 비중 비교연구: 모성의 중심성과 한국문화의 특유성, 세계적 전망에서의 한국학, 제6회 환태평양 한국학 국제 학술대회자료집, 218-224.
- 신기영(1991). 중년기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학석사학위논문.
- 앤소니 기든스 저 권기돈 역(2001).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 염영미(1998). 여성정체성 변화에 대한 연구-지역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윤택림 (1996). 생활문화속의 일상성의 의미. **한국여성학**, 12(2), 79-117.
- 이상희(2000). **여가활동과 한국중산층 전업주부의 문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경(2003). **가족의 이름으로**,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장혜경 · 김영란 (2000). 전업주부의 심리 · 정서적 안녕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연구원**.
- 조용환(1999). **질적 연구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 _____(1997). **한국의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 성, 가족, 그리고 문화, **집문당**, 9 (72).
- 한경혜 · 노영주(2000). 중년 여성의 40대 전환기 변화 경향과 대응. **한국가족학회지**, 5(1), 1-22.
- 함인희 · 이동원 · 박선웅(2001).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집문당.
- Bosma, Harke A., and Tobi L. G. Graafsma, and Harold D. Grotevant, and David J. de Levita(ed)(1994). *Identity and Development*, London: Sage Publications.
- Elizabeth B.G.(2000). *Resource Management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Wadsworth.
- Michael Rothenberg(1981). *The Encyclopedia of Psychology*. DPG Reference Publishing Inc..
- Sharon R. Kaufman(1986), *The Ageless Self*,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Spradley J.P(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o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이봉희 역(1996).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Susan K.W.(1986). *The Me I Know: A Study of Adult Identity*, New York:Springer-Verlag.

(2004. 08. 30 접수; 2004. 10. 11 채택)